

환경규제 강화와 자동차 도료산업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Consumer & Industrial Products Industry

Chemicals & Specialty Materials Sector Leader

길기완 전무



환경규제 강화와 자동차 도료산업

들어가며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자동차 도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후 기준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자동차 도료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환경보존에 대한 요구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기존의 화학물질에 대한 법체계를 정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도료시장에도 큰 영향이 미치고 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면제용제의 인정 등 현재 유럽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0년경에는 유럽기준 또는 그보다 강화된 관련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예상대로 2020년에 유럽기준보다 더 강화된 휘발성유기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 도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용 도료시장에 대한 이해

자동차용 도료시장은 크게 자동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OEM용 도료와 일반 자동차 보수를 위한 보수용 도료로 나누어 진다. OEM 도료의 경우, 각 사별로 특정도료업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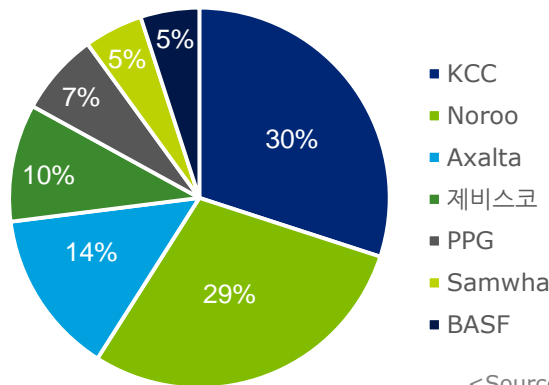
OEM	2015년 국내생산대수 (천대)(*1)	점유율	도료 공급업체
현대자동차	1,858	40.8%	KCC
기아자동차	1,718	37.7%	Noroo
한국지엠	615	13.5%	PPG
쌍용	146	3.2%	강남제비스코
르노삼성	205	4.5%	BASF
기타	14	0.3%	

(*1)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에 반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보수용 도료의 경우는 OEM 도료와는 달리,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7~8개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보수업체는 국내업체 직영서비스센터 및 수입차 서비스센터 각 100여 개 정도를 포함하여 전국에 약 3,500개가 넘는 자동차 공업사가 경쟁하고 있다. 이 서비스센터를 포함한 자동차 공업사들에 보수용 도료 생산 (수입)업체들이 제품 및 기술을 공급하고 있으며 OEM 도료와는 달리, 한 공업사에서 여러 곳의 보수용 도료업체를 거래하기도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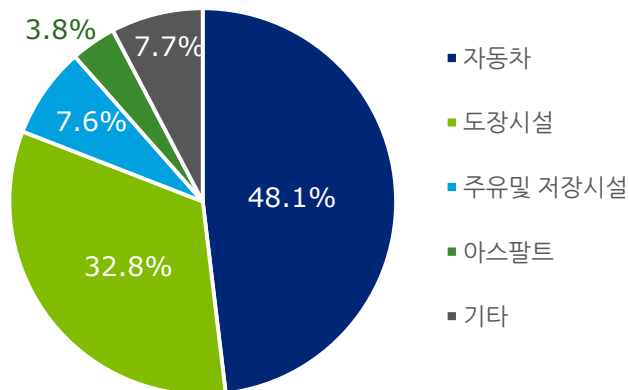
국내의 보수용 도료시장은 KCC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나, 1980년경부터 외산브랜드의 보수용 도료 제품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최근 주요 보수용 도료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Source: Industry experts interview>

휘발성유기화학물과 환경규제

휘발성유기화학물은 직접적으로 인체에 해를 입히며, 스모그 발생 및 오존 생성에 관여하여 지구온난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하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대기오염물질과는 다르게 배출원이 굴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저장시설, 수송수단 및 공정 중에서의 증발 및 누출 (특히 도장공정)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임으로 배출원 관리를 위하여 환경 관련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휘발성 유기화학물의 주요 배출원은 아래와 같다.



<Source : 휘발성유기화학물질, 환경부 대기공학과, 환경연구원 장성기>

환경 관련법의 강화가
OEM 도료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수용 도료 시장은
위축 또는 도료시장의
사업구조 재편 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관련법의 강화에 대한 대응

OEM 도료는 자동차 생산업체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임으로 자동차 생산업체의 상황 및 전략에 따라 각각 환경관련법에 대한 대응이 상이하다.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의 경우 생산량 총량에 따른 배출 가스량과 수출국의 환경 심화 문제로 현행 법령보다 더 강화된 수용성 도료를 100%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지엠, 쌍용자동차는 아직 수용성 도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아자동차는 수출국이 늘어나면서 현재 50% 수준의 수용성 도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100% 수준까지 높일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OEM 도료의 경우, 자동차 생산업체가 환경 관련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도료 공급업체도 강화된 환경 관련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므로, 환경 관련법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OEM 도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가상승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를 외에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용 도료의 경우는 OEM 도료에 비하여 좀 더 복잡한 양상이다. 보수용 도료 시장은 전국에 약 3,500개가 넘는 자동차 공업사에 제품과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외 7~8개의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다.

수입차와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일부 국내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에서는 이미 수용성 도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 보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자동차공업사의 경우에는 수용성 도료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용 도료 시장의 양극화는 국내 자동차공업사의 영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입차 서비스센터나 국산차 직영서비스센터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생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 영세한 대부분의 공업사에서는 친환경 제품인 수용성 도료의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자금 및 기술력 부족으로 면제용제를 이용한 유용성 도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관련법이 강화된다면,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자동차 공업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보수용 도료시장의 위축 또는 도료시장의 사업구조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보수용 도료에 대한 환경관련법 강화 관련 산업계의 의견

보수용 도료에 대한 환경 관련법 강화와 관련한 주요 논점은, 강화된 규제가 언제부터 시행될 것 인지와 만약 시행된다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우선, 휘발성유기화학물에 대한 규제가 2020년경에 강화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란 논점에 대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2020년에 유럽기준 이상의 강화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시행시기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국 시행시기에 대한 의문은 있으나 결국 우리나라도 강화된 환경규제에 따른 환경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다. 다만, 시행방법에 대해 점진적인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2020년에 유럽기준 이상의 환경규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렸다.

다음으로, 강화된 휘발성유기화학물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면 업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란 논점이다.



유통망과 기술력을 보유한 **KCC**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산브랜드 시장 점유율 역시 증가할 것이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그 시행시기가 **2020년** 이후가 될 것이고 각 업체에서 환경규제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으므로 각 업체간 **market share**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강화된 규제 시행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으나, 주로 KCC 및 외산브랜드 도료업체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과 매출단가의 상승으로 전체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각 공급업체간의 시장점유율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소수 의견으로는 법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면제용제는 계속 용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용 도료시장이 수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High end market과 면제용제를 이용한 유용성 도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Low end market (중소형 공업사 중심)으로 시장이 양분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결언

휘발성유기화학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중점으로 이로 인한 자동차 보수용 도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 인터뷰 등을 통하여 개관하여 보았다.

환경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 역시 Global Standards에 맞춰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학산업은 환경규제에 민감한 산업으로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화학산업은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이미 많은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온 선진 외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환경규제 강화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창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의 강화에 힘써야 할 때이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